

특기고 (32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 권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충재 선생 69세; 명종 원년(1546년, 병오년, 명 세종世宗 25년) 8월에 대간(臺諫;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선생의 모든 직첩(職牒)을 빼앗도록 하라는 계(啓)를 두 차례나 올렸다. 그해 8월 10일(갑오) 4번째 기사에 사헌부가 충재 선생에게 벌을 청하면서 “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권벌(權機)은 늘 유인숙(柳仁淑)을 호걸지사(豪傑之士)라 칭하면서 친분과 원래가 탄 사람과 달랐으니, 역모에 대해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인숙

이 죄받을 즈음에는 구출하기 위하여 진달하였으므로 파직에 그쳤습니다. 불정이 온당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의 관작을 삭탈하소서.”라고 하였다.

선생의 70세 때(명종 2년; 1547년, 정미년) 9월 18일에 양재역(良才驛; 당시 경기도 광주; 현재 서울 서초구) 벽서(壁書) 사건이 일어났다. 곧 정미사화이다. 그 벽서의 내용은 당시 국정을 비난하면서 ‘여주(女主; 문정왕후)가 위에서 집정(執政; 수렴청정 垂簾聽政)하고 간신 이기(李荇, 1476-1552) 같은 자들이 밑에서 정원을 농락하고 있으니, 국가가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을 한 자리에 서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중추월(仲秋月) 그믐날.’라고 씌여져 있었는데, 홍문각 부제학 정언각(鄭彦毅,

1498-1556)이 벽서를 발견하여 명종에게 올렸다.

그 당시, 즉 을사사화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문정왕후의 오매비인 윤원형과 이기를 ‘이홍(二凶)’이라 하고 정순봉(鄭順朋, 1484-1548), 임백령(林百齡, ?-1546), 정언각을 ‘삼간(三奸)’이라 불렀다. 이 때 문정왕후는 이기와 정순봉을 불러들이고 이 벽서를 내보였다. 그러자 정순봉이 “아직까지 사악한 논의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건대 이 벽서 역시 무식한 자의 소행은 아닐 것입니다. 대개 처음부터 죄인들이여……”라고 하여 乙巳士禍 때 아직 살아남은 관료와 선비들을 죽이려 버리면서, 곧 형벌을 내려야 할 명단을 적어 대궐로 들어갔다. 이 때 충재 선생은 처음에

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광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중춘(仲春)에 동·서·남·북의 별자리는 각기 그 바른 위치를 얻는다. 여름에는 남방칠수(南方七宿)의 주조(朱鳥)가 유전(流轉)하여 화수(火宿)가 중심이 되고, 가을에는 화수(火宿)가 자리를 옮기니 허수(虛宿)가 중심이 되며, 중동(仲冬)에는 서방칠수(西方七宿)의 묘수(昴宿)가 중심이 되는 것 등은 천도(天道)가 어긋나지 않음이다. 지금은 동지 때 북방의 별자리가 오방(午方)에 자리하고, 서방의 묘수(昴宿)는 그 동쪽에 위치한다.

점차 편차가 오래되면 묘수(昴宿)는 봄철의 중심으로 화수(火宿)는 가을철의 중심으로 변할 것이다. 또한 점점 차

이가 나서 화수(火宿)는 동지 때의 중심이 될 것이니, 천지(天地)의 기운이 거꾸로 바뀌는데 이르지 않았는가? 이것이 천지에 끝과 시작이 있게 되는 까닭이다.

이십팔수(二十八宿)가 하루에 일주전(一周天)함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며 일년에 일주전(一周天)함은 일년의 시작과 끝이며, 일원(一元)에 일주전(一周天)함은 일천지(一天地)의 시작과 끝이다. 이로써 생각해 본다면, 천지(天地) 개벽(開闢)의 처음 갑자(甲子) 이반(夜半) 동지(冬至)의 때에, 사방위(四方位)의 별자리들이 비로소 그 방위에 나타났을 것이다. 남방의 주조(朱鳥)는 실은 동짓날 저녁 무렵에 남중한다. 점점 세차가 발생하여 요 일

금때에 이르러서 주조(朱鳥)는 또 자리를 옮겨 춘분날의 저녁 무렵 남중하는 별자리가 되었다.

사방위의 별자리가 비록 개벽(開闢) 때에 처음 나타나 방위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지만, 봄철은 사계절의 선두요 동방은 사방위의 머리이다. 개벽 때에 동방의 별자리는 계절로 겨울이요, 방위로는 동쪽에 있으니, 계절과 방위가 그 바름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에 요 임금 때에 이르러 동방의 별자리가 비로소 그 계절로서 그 방위에 더해지니, 천지의 기운이 가장 바름을 얻어 문명(文明)의 기회를 얻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이보다 더 성한 때가 없었으며, 뒤에도 이에 미칠 수가 없으니, 이 때를

구례현(求禮縣; 남쪽 전라도, 남원과 곡성 근처)에 부처(付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가 다시 태천군(泰川郡; 평안도 운산과 영변 근처)으로 유배령이 떨어졌다. 선생은 태연히 선연에 참배하고 길을 떠나 용안역(用安驛)에 이르니, 의금부 관리가 안동 쪽을 향하여 급히 내달라는 것이 보이자 일행이 깜짝 놀라 울부짖으니, 충재는 정색을 하며 이를 꾸짖었다. 금부도사가 이르러 사주(朔州; 평안도 압록강 중하류변; 현재 수동읍이 있는 곳)로 이배(移配)되었음을 알렸다. 당시 이기는 반드시 충재 선생과 회재 이언적을 죽이려고 경연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형이 오히려 간사하게 이기의 권세를 이기고 자신의 향후 매망과 권세를 위해 문정왕후에게 ‘인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둘을 죽여서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기의 주장에 대해 문정왕후의 반대로 살아남게 되었다.

이 때 선생의 아들 권동보(權東輔, 1517-1591, 호는 청암靑巖)가 관직에 매어 서울에 있었던 관계로 충재는 편지를 써서 경계하기를 “옛적(중국 북송 때)에 범충신(范忠宣, 북송 때 재상, 본명은 범순인范純仁, 충선은 시호, 오현인吳縣人,

자는 요부堯夫, 재상인 범중임범仲淹)의 차자. 상서북야尙書僕射, 중서시랑中書侍郎, 장돈章惇의 모함으로 영천으로 유배당함. 휘종徽宗 때 관문전觀文殿 대학사)도 나이 70에 만리 바깥으로 유배당한 일이 있었다. 이에 비하면 너의 아비가 받은 죄벌은 아주 관대한 은전이라 할 수 있으니, 너는 이 일을 한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다만 40년 동안이나 나라의 큰 은혜를 입서서 짊어진 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죽더라도 정례를 하하게 지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 때 탄수(難叟) 이연경(李延慶, 1484-1548)이 충재의 유배 길에 나와 손을 잡고 작별인사를 하면서 한참동안 흐느꼈는데, 충재가 말하기를 “생사와 회복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다. 하늘이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떠났다. 탄수는 1504년 연산군 때 갑자사화로 연좌되어 귀양을 갔다가 중종반정으로 풀려나 생원시에만 합격하고 재야에서 학문진정과 후배 양성과 제자 육성에만 전념하여 대교에는 관심이 없었다. 중종 때 현량과(賢良科)에 등용되고 사헌부 지평, 홍문관 교리 때 조광조를 천거하였다. 기묘사화 때 죽을 번 하였으나 면하고, 충재 선생의 절친한 지

우인 음에(陰崖) 이자(李紱) 등과 산수를 벗하며 낚시를 즐겼다. 제자로 노수신, 이준경, 강유선, 심건 등이 있다. 사후에 이조판서로 증직되고 시호는 정효(貞孝)이고, 팔봉서원에 배향되었다. 충재 선생의 유배 행렬이 경기도 벽제역(碧蹄驛; 과주)에 이르렀을 때, 회재 이언적도 또한 강계(江界, 평안도 압록강의 지류인 독로강변)로 유배 길을 떠나는 길이었다. 충재 선생은 자조적으로 여유 있게 “李貳相 이이상(찬성)과 권이상의 행차가 일시에 이뤄지니 어찌 이토록 빛나는(赫赫赫赫)가?”라고 하였다. 끝내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떠났는데 그 길로 영영 이별이었다. 여기에 대한 회개 선생의 충재 선생 행장(行狀)에 보면, 먼저 탄수가 회재를 만나보았는데, 회재는 몹시 우울한 기색을 보이면서 국가의 위급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였다. 또 충재를 만나보니 “이찬성과 권한성……”이 이야기를 하며 조금도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탄수가 이 일을 두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회재는 나라 걱정을 잊지 않고, 충재는 생사와 회복을 다 잊었으니, 두 분 다 어떤 경지에 이른 분이다.”라고 하였다(“燃犀室遺述” 제10권. 〈다음호에 계속〉)

천세만세토록 성인이 다스린 으름으로 삼는다. 그 하늘을 관측하여 때를 알아내고, 또한 분명(分命)한 것은 요 임금이 천도(天道)가 자신의 시대에 이르러 변하였음을 알았던 것이다. 이에 새로운 근원을 창조하고 및 역법(曆法)을 바꾸어 새롭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중(叢仲)과 회숙(叢叔)에게 나누어 명령한 글 가운데 “일중성주

이은중준(日中星鳥, 以叢仲) 등의 말이 있다. 이 대목은 회화(羲和)에게 주조(朱鳥)의 별자리가 남중할 때가 과연 중춘에 적합하고 백성들이 평화롭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시기에 적합한지를 살피서 증험(考驗)케 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역법(新曆)을 만들고 살펴서 증명하게 한 까닭이므로 그의 말이 이와 같다.

만일 별자리가 주조(朱鳥)인 때 본래 중춘(仲春)에 나타났다면 어찌 다시 이러한 명령이 있었겠는가? 이것이 성인(聖人)이 “선천(先天)의 시기에 일을 할 때는 하늘은 뒤에 있어 성인이 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고, 후천(後天)의 시기에 일을 할 때는 상천(上天)의 뜻을 받들어 따른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제6회 高麗大殿 大祭 奉行 예정

오는 10월 6일(금)·오후 8월 21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시 탄현면 성동리에서 제6회계를 맞이하는 2012년 임진년 고려대 전제가 고려역사를 선양하는 왕과 충신의 위업을 추모하고, 또한 겸해서 국제탄관과 통일을 기원하는 대제(大祭)가 봉행될 예정이다.

우리 권문(權門)의 선조님은 고려초 개국공신인 시조태사공(始祖太師公) 휘 행

(諱 幸)으로부터 13세 국재공(菊齋公) 휘 보(溥), 14세 정헌공(正獻公) 휘 후(煦), 14세 사복제(思復齊) 휘 정(廷), 15세 밀직공(密直公) 휘 중귀(重貴), 15세 영가군(永嘉君) 휘 상좌(上佐)등, 여섯분이 배향되어 함께, 봉행(奉行)될 예정이오니 국내외족친모두는 많이 참석하기를 바라맞이 않는다.

또한, 이곳은 서울에서 자유로를 타고,

30분정도 달리다 보면 오른쪽 산비탈 위로 거대한 한옥구조로 되어있다. 고려 통일대전은 고려시대 60여개 성(城) 반은 120여개 문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고려대전(高麗大殿)은 고려역사를 재조명하고 당시 충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있다. 왕들의 위패를 모신 정전(正殿) 충신공신의 위패를 충·공신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에는 고려 역대 인물들의 문집, 유명화, 금석문, 탁본, 문중의 족보 등이 전시되어 있다.

孝行에 대한 孝文化 여러 생각

■ 권貞澤 (成均館 典儀 兼 禮博士)

2007년 7월 2일 오후 4시 30분 대한민국 국회에서 ‘효행(孝行)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그 부칙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다음날인 2007년 8월 3일 그 시행령(施行令)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으며 2008년 8월 4일부터 발효되어 이래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사회에서 수천 년 인습으로 내려오던 효문화(孝文化)를 법률(法律)로까지 제정하여 강제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격자심(自激之心)이 들기도 한다. 한편 이렇게 실정법으로 묶어서라도 우리 전통문화의 높은 도덕적 가치인 효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위정당국의 충정에는 심분 이해가 간다. 하기가 왕조(王朝) 시대 충효(忠孝)를 지고의 도덕률이라 실정법으로 삼아 신앙필범(信賞必罰)을 삼입하 하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의 법제는 권장성의 도덕률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선도(善導)한다 할 수 있는 각급 종교도 효의 가치를 알고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행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인의 도덕관은 논리적이고 인성관은 불교적(佛敎的)이며 행동철학은 또 기독교적이라는 말도 있다. 유교의 중심 사상은 인(仁)에 두고 있지만 그 논리적 기본은 효에 있다. 효는 백행(百行)의 근원(根源)이라 하여 백 가지 행실이 이 효에서 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공자(孔子)와 그 제자 증자(曾子)의 문답을 요약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효경(孝經)은 유교의 여러 경전 가운데 오로지 이 효행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 첫 구절이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

父母)라 불감훼상(不歎毀傷)이 효시(孝之始也)라 하여, 내 몸의 터럭과 살갗이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를 감히 다치고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행의 시작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가지고 조심하고 부지런히 힘써 입신양명(立身揚名) 몸을 세상에 드러내 세워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 하였다. 또한 공자의 말씀으로 「교민친애(敎民親愛)는 막선어효(莫善於孝)요 교민어순(敎民於順)은 막선어제(莫善於悌)라 하여, 백성을 교화하여 아버지를 친하게 함에 효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백성에게 예절과 순종을 가르침에 공경(恭敬)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한 말이 효경에 있다.

명심보감(明心寶鑑)은 정소년에게 윤리 교육을 먼저 시키기 위하여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추척(秋適)이 중국 고전에서 주려 세웠다는 설이 있는데 「효어친(孝於親)이면 자역효치(子亦孝之)이니 신기불효(身既不孝)면 자하효인(子何孝焉)이리요. 효순(孝順)은 환생효순자(還生孝順子)요 오역(忤逆)은 환생오역자(還生忤逆子)니라」 하는 말이 있다. 즉 내가 어버이께 효도(孝道)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내가 이미 불효했다면 자식이 어찌 내게 효도하게 되리요. 효도하고 순종하면 다시 효도(孝道)하고 순종(順從)하는 자식이 태어나고 어버이께 거스르면 다시 내게 거스르는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란 것이다.

불교의 경전에서 효를 살펴보면 인옥경(忍辱經)에서 효(孝)를 선(善)의 극치, 불효를 악(惡)의 극치로 보고 있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서는 어머니 은혜가 산고(産苦)를 감내하는 데서부터 자

식은 마른자리에 가려 놓고 자신은 진자리에 누우며 자식을 위해 악업을 거듭하는 은혜. 출산할 때 3달 3회의 피를 흘리고 8십 4말의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恩惠) 등을 생각하며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선지자(先知者)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十誡命)이 내려 풀에 새겨졌는데 그 제5계명에서 네 부모(父母)를 공경(恭敬)하라 하고 있다. 이러한 10계명의 5계명이 둘째 돌판의 첫번째에 기록됨은 매우 중요한 일로 첫째 돌판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는 하느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원리를 밝힌 내용이다. 그리고 둘째 돌판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의 생활 윤리가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5계명이 첫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인륜(人倫) 중에서 효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의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느님 다음에 부모를 두어 순종(順從)하고 사랑하며 공경(恭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선현(先賢) 중에도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은 모두 효가 그 생애의 근저에 깔려 있었다. 고려(高麗)말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아은(冶隱)가재(吉再)가 원래 대효(大孝)이고 그러한 효 때문에 또한 불사이군(不事二君) 지조(志操)를 지킬 수 있었다.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지어 아동의 교과서를 마련한 율곡(栗谷) 이이(李瑋)는 그 사친장(事親章)에서 효를 강조했으며 어머니를 위해 사제남정기(謝氏南征記)와 구운몽(九雲夢)을 지은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이나 전쟁중에도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쓰면서 효를 다한 충무공(忠武公) 이

순신(李舜臣), 의사(義士) 안중근(安重根), 백범(白凡) 김구(金九) 등 우리 역사에 불멸의 족적을 남긴 인물들은 거의 다 그 삶의 바탕에 효가 기본으로 깔려 있었다. 이는 효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항심(恒心)을 삼아 이를 실천(實行)하면 심성(心性)이 착해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족을 우애(友愛)하며 그 같은 아버지와 가족(家族)이 지켜지려면 나라가 있어야 하므로 국가(國家)에의 충성(忠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효초의 기본 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세상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나 양태는 달라지고 있다. 옛적의 효는 생사(生死)의 경계(境界)도 넘어 아버지의 사후에도 사사여생(事死如生)의 정신으로 섬겼다. 그 시작이 부모가 죽으면 하늘을 뚫을 죄인을 자처하며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3년 시묘(侍墓)살이를 함이었고 계절마다 시제(時祭)를 지내며 절사(節祀)와 기신제(忌辰祭) 묘제(墓祭) 등을 받들어 그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바침이 다음이었다. 고대에는 파난 중 어머니에게 구해다 준 음식을 대신 먹어 어머니가 어려서 효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의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느님 다음에 부모를 두어 순종(順從)하고 사랑하며 공경(恭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선현(先賢) 중에도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은 모두 효가 그 생애의 근저에 깔려 있었다. 고려(高麗)말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아은(冶隱)가재(吉再)가 원래 대효(大孝)이고 그러한 효 때문에 또한 불사이군(不事二君) 지조(志操)를 지킬 수 있었다.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지어 아동의 교과서를 마련한 율곡(栗谷) 이이(李瑋)는 그 사친장(事親章)에서 효를 강조했으며 어머니를 위해 사제남정기(謝氏南征記)와 구운몽(九雲夢)을 지은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이나 전쟁중에도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쓰면서 효를 다한 충무공(忠武公) 이

순신(李舜臣), 의사(義士) 안중근(安重根), 백범(白凡) 김구(金九) 등 우리 역사에 불멸의 족적을 남긴 인물들은 거의 다 그 삶의 바탕에 효가 기본으로 깔려 있었다. 이는 효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항심(恒心)을 삼아 이를 실천(實行)하면 심성(心性)이 착해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족을 우애(友愛)하며 그 같은 아버지와 가족(家族)이 지켜지려면 나라가 있어야 하므로 국가(國家)에의 충성(忠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효초의 기본 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세상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나 양태는 달라지고 있다. 옛적의 효는 생사(生死)의 경계(境界)도 넘어 아버지의 사후에도 사사여생(事死如生)의 정신으로 섬겼다. 그 시작이 부모가 죽으면 하늘을 뚫을 죄인을 자처하며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3년 시묘(侍墓)살이를 함이었고 계절마다 시제(時祭)를 지내며 절사(節祀)와 기신제(忌辰祭) 묘제(墓祭) 등을 받들어 그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바침이 다음이었다. 고대에는 파난 중 어머니에게 구해다 준 음식을 대신 먹어 어머니가 어려서 효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의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느님 다음에 부모를 두어 순종(順從)하고 사랑하며 공경(恭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선현(先賢) 중에도 커다란 족적을 남긴 분은 모두 효가 그 생애의 근저에 깔려 있었다. 고려(高麗)말 삼은(三隱)의 한 사람인 아은(冶隱)가재(吉再)가 원래 대효(大孝)이고 그러한 효 때문에 또한 불사이군(不事二君) 지조(志操)를 지킬 수 있었다.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지어 아동의 교과서를 마련한 율곡(栗谷) 이이(李瑋)는 그 사친장(事親章)에서 효를 강조했으며 어머니를 위해 사제남정기(謝氏南征記)와 구운몽(九雲夢)을 지은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이나 전쟁중에도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쓰면서 효를 다한 충무공(忠武公) 이

순신(李舜臣), 의사(義士) 안중근(安重根), 백범(白凡) 김구(金九) 등 우리 역사에 불멸의 족적을 남긴 인물들은 거의 다 그 삶의 바탕에 효가 기본으로 깔려 있었다. 이는 효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항심(恒心)을 삼아 이를 실천(實行)하면 심성(心性)이 착해지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족을 우애(友愛)하며 그 같은 아버지와 가족(家族)이 지켜지려면 나라가 있어야 하므로 국가(國家)에의 충성(忠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효초의 기본 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세상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나 양태는 달라지고 있다. 옛적의 효는 생사(生死)의 경계(境界)도 넘어 아버지의 사후에도 사사여생(事死如生)의 정신으로 섬겼다. 그 시작이 부모가 죽으면 하늘을 뚫을 죄인을 자처하며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3년 시묘(侍墓)살이를 함이었고 계절마다 시제(時祭)를 지내며 절사(節祀)와 기신제(忌辰祭) 묘제(墓祭) 등을 받들어 그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바침이 다음이었다. 고대에는 파난 중 어머니에게 구해다 준 음식을 대신 먹어 어머니가 어려서 효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의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느님 다음에 부모를 두어 순종(順從)하고 사랑하며 공경(恭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